

기독교대학생의 종교성향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박 미 하*

국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대학생의 종교성향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대학생 247명이었으며, 종교성향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 진로결정수준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8.0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대학생의 외재적 종교성향과 자아존중감, 진로결정수준 간에는 모두 부적 상관이 있었고, 내재적 종교성향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독교대학생의 외재적 종교성향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었다. 즉, 외재적 종교성향은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었다. 반면, 내재적 종교성향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적 종교성향은 진로결정수준에 통계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자아존중감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기독교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재적 종교성향을 감소시키고 내재적 종교성향을 통한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기독교적 상담개입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기독교대학생, 외재적 종교성향, 내재적 종교성향, 자아존중감, 진로결정수준

• 논문 투고일: 2017년 3월 30일

• 논문 수정일: 2017년 5월 4일

• 게재 확정일: 2017년 5월 11일

* 서울한영대학교

I. 여는 글

대학생은 졸업 후 직업세계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단계로 진로에 대한 명료한 탐색을 통해 진로 목표를 실행하면서 개인에게 알맞은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졸업유예, 전과, 편입, 휴학 등을 하면서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졸업유예자가 2011년 8천 2백명에서 2014년에는 2만 5천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9학기 이상 등록자도 12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¹⁾ 이러한 현상은 대학생들이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서도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채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학생이 진로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 무력감을 경험하거나 자기 확신의 부재, 학업적응 등의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직업선택을 할 경우에는 직무만족, 조직헌신, 직무수행 등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주 회사를 이직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²⁾ 이와 같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은 심리적, 학업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졸업 후에도 직업안정성이 위협 받을 수 있는 주요

1) 조선일보, “3배 급증한 졸업유예, 취업에 별 도움 안돼” (2016년 2월 29일): 2016년 9월 28일 접속, <http://news.chosun.com>.

2) M. S. Lucas, “A Validation of Types of Career Indecision at a Counseling Cente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no. 4(1993): 440; D. E. Saunders, G. W. Peterson, J. P. Sampson, Jr., & R. C. Reardon, “Relation of Depression and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to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 no. 2(2000): 288–298; Joanne K. Earl & Jim E. H. Bright,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Status and Important Work Outcom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1, no. 2(2007): 233–246; Joanne K. Earl, Amirali Minbashian, Aun Sukjjjakhamin, & Jim E. H. Bright, “Career Decision Status as a Predictor of Resignation Behavior Five Years Later,”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8, no. 2(2011): 248–252.

변인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진로결정을 통해 진로목표를 수립하고 구체적인 직업 준비를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도움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독교대학생은 일반대학생과 달리 생업을 넘어 어떤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직업적 소명을 발견하고 진로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기독교대학생에게 신앙은 삶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내적 주요변인으로 진로결정 및 직업탐색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응답하고 신앙을 실천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³⁾ 이억범의 연구에서도 기독교대학생의 신앙심이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따라서 기독교대학생의 진로결정을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일반대학생과는 차별화된 개입전략이 요구된다. 그리고 동일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할지라도 동기와 태도 등 신앙의 개인차에 따라 진로발달 및 심리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의 신앙상태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기독교대학생의 신앙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에는 종교성향이 있다. 종교성향은 개인의 종교심을 평가하는 것으로 신앙의 동기에 따라 외재적 종교성향과 내재적 종교성향으로 유형이 구분된다. 외재적 종교성향은 종교를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미성숙한 신앙태도를 의미하고, 내재적 종교성향은 종교적 신념을 내면화하여 삶속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성숙한 신앙태도를 말한다.⁵⁾ 종교성향에 대한 연구들은 종교성향에 따라 정신건강에 차이가 있어서 외재적 종교성향은 부적응적 특성과 내재적 종교성향은 적응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3) 박진희, “나눔의 프락시스에 기초한 기독교대학생 진로상담의 모델과 실천방향”, 한국 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0권(2012): 125-153.

4) 이억범, “기독교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경로분석”, 진로교육학회, 「진로교육연구」 제24권 4호(2011): 120-122.

5) G. W. Allport & J. W. Ross,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no. 4(1967): 432-443.

하고 있다.⁶⁾ 기독교대학생의 경우에도 기독교에 대한 신앙 동기와 태도 및 성숙여부에 따라 종교성향에 차이를 보이고, 유형에 따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경험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종교성향이 그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력을 준다고 가정한다면, 매개변인을 찾아보고 그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매개효과란 매개변인을 통하여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즉, 종교성향과 진로결정수준을 연결하는 변인을 찾는 것이다. 매개변인이 중요한 이유는 매개효과가 검증될 경우 독립변인이 아니라 매개변인에 초점을 두고 상담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성향은 신앙동기와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담현장에서 단시간에 상담적 개입을 통해 변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따른다. 이때, 종교성향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진로결정수준을 촉진시키거나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매개변인이 될 수 있다면 상담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종교성향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적합한 변인이 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가치평가로 진로결정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효과적인 변인으로 알려져 있고, 종교성향과 우울과의 관계연구에서도 종교성향에 따라 우울을 감소시키는 매개효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⁷⁾

6) 심수명, “전인성숙을 위한 제자훈련 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 종교성향과 동기이론을 중심으로”,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국제신학』 제8권(2006): 199; 제석봉, “외재적-내재적 종교성향과 불안 및 부적응과의 관계”,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연구논문집』 제53권 1호(1996): 121-234.

7) 송소원,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 자기효능감에 따른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 상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제14권(2001): 1-23; 김희수, “고등학교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 경북대학교 사범대학부속 중등교육연구소, 『중등교육연구』 제53권 3호(2005): 76; 정명숙, “신학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분화와 진로결정수준 간의 상관관계 연구”(석사학

기독교대학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지위가 변화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평가가 새롭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종교성향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대학생의 종교성향에 따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매개효과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경험적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대학생의 진로결정이 신앙과 관련이 있다는 측면에서 종교성향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매개효과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검증된다면 향후 기독교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기독교인의 건강한 신앙적 태도와 자아존중감이 기독교 진로상담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대학생의 종교성향, 자아존중감,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기독교대학생의 종교성향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펴는 글

1. 이론적 배경

1) 종교성향

종교성향이란 한 개인이 종교를 바라보는 관점과 수용하는 태도를 말

위논문, 호남신학대학교, 2011), 30-49; 박미하, “기독교인의 종교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의 매개효과”, 기독교학문연구회, 「신앙과 학문」 제19권 1호 (2014): 89-90.

한다. Allport와 Ross는 종교생활을 하는 목적에 따라 종교성향을 외재적 종교성향과 내재적 종교성향으로 나누었다. 외재적 종교성향은 자신의 이익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종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정서적 안정, 위로감, 친교, 사회적 지위 등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내재적 종교성향은 종교를 삶의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종교적인 신념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⁸⁾

외재적 종교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에 맞는 종교적 신념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신앙이 미성숙하여 종교를 통한 인격적 변화가 나타나기 어렵다. 반면, 내재적 종교성향의 사람들은 종교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종교적 신념과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한다. 이들은 신앙적으로 성숙하여 삶과 인격 전체에 걸쳐 종교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⁹⁾

이로 볼 때, 기독교대학생의 종교성향은 기독교를 바라보는 관점과 이를 수용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기독교대학생의 외재적 종교성향은 자신의 이익과 욕구 충족을 위해 선택적으로 기독교의 교리를 수용하는 미성숙한 신앙태도를 말한다. 기독교대학생의 내재적 종교성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기초로 성경을 자신의 삶 전체에서 실천하는 성숙한 신앙태도라고 할 수 있다.

종교성향은 동일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신앙에 대한 목적과 태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차이가 있다. 외재적 종교성향의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자아분화수준이 낮아서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특성이 있다.¹⁰⁾ 또, 외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대학생이 내재적 종교성향의

8) Allport & Ross,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432-443.

9) 서유진 · 이규미, "내재적 종교성향과 역경후 성장의 관계: 감사성향과 사건중심성의 매개효과",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제17권 3호(2016): 443.

10) 심수명, "전인성숙을 위한 제자훈련 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 199; 제석봉, "외재적-내재적 종교성향과 불안 및 부적응과의 관계", 121-234.

대학생보다 정서적 무책임과 의존성, 무기력 그리고 완벽함에 대한 비합리적인 신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 반면, 내재적 종교성향의 사람은 적응적인 심리적 특성과 정적 상관성이 있었고 긍정적인 종교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²⁾

기독교대학생도 외현적으로는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신앙에 대한 동기와 태도가 다른 종교성향에 따라 진로발달 및 심리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대학생의 종교성향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고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심리적 개념이다. Coopersmith는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평가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¹³⁾ 송원섭은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라고 하였다. 즉, 자신의 동기나 행동에서 가지게 되는 자기 가치감,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유용성, 자신의 능력에 대한 유능성에 대해서 가지는 기본적인 느낌을 말한다.¹⁴⁾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 느끼는 정서를 포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11) 김재석, “대학생의 내재적-외현적 종교성향에 따른 비합리적 신념 수준의 차이”,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제9권 1호(2008): 23.

12) 조혜윤 · 손은정, “종교성향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종교적 대처와 낙관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0권 3호(2008): 773-793.

13) N. Branden, *The Power of Self-Esteem*, 강승규 역, 『나를 존중하는 삶』 (서울: 학지사, 1992), 23-25.

14) 송원섭,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서울: 양서원, 1989), 10.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을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가치감과 자기 가치를 토대로 나는 주어진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어려운 문제들을 더 잘 극복하고 성공해낸다. 학업은 물론 직업, 우정,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낸다.¹⁵⁾ 자아존중감은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관심 있는 존중을 받고 자신의 성공경험에 지속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된다. 즉, 조건 없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가치 있게 여겨주는 타인이 안전기지 역할을 해 줄 때 자아존중감이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기독교인의 자아존중감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소중하며, 능력이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할 만한 피조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¹⁶⁾ 기독교인은 조건 없이 죄인인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가치 있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신 은혜의 경험을 통해 건강한 자아존중감이 새롭게 형성 된다고 볼 수 있다. 건강한 자아존중감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해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을 통해 겸손함의 특성을 보인다. 그리고 자기를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기적인 욕구들과 행동들을 거절하는 자기 부인을 통해 타인을 공감해주고 사랑할 수 있다.¹⁷⁾ 이로 볼 때, 기독교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정적인 자기가치감과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5) 정지은 외, 『아이의 사생활』 (서울: 지식채널, 2010), 347.

16) D. E. Carlson, *Counseling and Self-Esteem*, 이관직 역, 『자존감』 (서울: 두란노, 1997), 24.

17) Carlson, 『자존감』, 29-35.

3)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수준이란 자신의 학업 및 직업적 선택과 관련한 진로결정과 정에서 나타나는 진행수준과 향후 진로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의미한다.¹⁸⁾ 김봉환은 현재 이후의 진로에 대한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대학에서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 또는 졸업 후에 진출할 구체적인 직업분야를 선택한 상태를 진로결정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에 대한 연속선상에 있는 단계를 진로결정수준이라고 하였다.¹⁹⁾ 이성식은 장기간의 진로교육을 통해서 진로계획이 잘 수립된 결과 진로 선택을 해야 하는 결정적 시기에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할 수 있게 된 상태를 진로결정이라고 하였다. 진로미결정은 직업선택과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단계에서 진로결정을 확실하게 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²⁰⁾

진로미결정자는 단순한 미결정자와 만성적인 미결정자로 구분될 수 있다. 단순한 미결정자는 발달상의 문제 또는 불충분한 정보 때문에 진로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만성적 미결정자는 자기이해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결정 자체를 미루면서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우유부단함을 보이는 상태를 보이는 것이다.²¹⁾ 이러한 만성적 미결정은 개인의 인성적 특성이 적응적이지 못한 것으로 개인의 정신건강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²⁾

18) 임은미 · 장선숙, “인터넷 활용 진로정보탐색 프로그램의 즉시적 효과와 지속적 효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사결정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제18권 4호(2004): 142.

19) 김봉환 · 김계현,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9권 1호(1997): 316.

20) 이성식,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모형”(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7), 52.

21) 이현주,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따른 인지양식 차이”,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제37권 2호(1999): 236.

22) 이현주, “진로미결정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분석”,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제14권 1호(2000): 113-140.

이로 볼 때,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이란 현재 자신의 전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졸업 이후에 진입할 구체적인 직업분야까지 의사결정을 한 상태로 자신의 진로 선택에 대해 확신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결정 수준이 높다는 것은 진로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탐색하고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장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은 생업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직업적 소명과 관련이 있다. 기독교대학생은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여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기독교대학생들 중에는 소명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로결정을 기약 없이 미루는 경우가 있다. Friesen과 Maxson도 기독교인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신앙과 이성이 균형을 이룬 결정보다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시키거나 분명한 소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결정을 지연시키고, 환경이 선택해 주는 길을 따르는 오류에 빠지기 쉽다고 하였다.²³⁾ 기독교대학생도 졸업 후 자신에게 주어진 직업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과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

4) 종교성향, 자아존중감,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

종교성향은 종교에 대한 동기와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일한 종교인의 심리적 개인차를 설명해 주는 변인이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외재적 종교성향은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이 있고, 내재적 종교성향은 감사, 친사회적 행동 등과 같은 적응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

23) G. Friesen & J. R. Maxson, *Decision Making and the Will of God: A Biblical Alternative to the Traditional View* (Portland, OR.: Multnomah Press, 1980), 126.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²⁴⁾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정서적 영역에 제한되어 있고, 특히 진로영역에서 종교성향에 따른 특성의 차이를 밝힌 연구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일부 기독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앙성숙도 및 신앙심이 진로결정수준과 정적인 상관성이 있고, 신앙성숙도의 하위요인인 교회생활과 신앙고백이 진로결정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범은 이 연구들을 통해 신앙심은 기독교적 사고를 통해 개인이 가진 환경을 재해석하여 시각된 진로문제를 도전적으로 평가하도록 돕고, 기독교적 생활은 실제적인 행동을 강화시켜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²⁵⁾ 이 연구는 비록 종교성향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종교성향이 신앙의 성숙여부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외재적 종교성향이 미성숙한 신앙을, 내재적 종교성향이 성숙한 신앙을 나타내기 때문에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민선과 박미하가 기독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재적 종교성향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긍정적 환상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⁶⁾ 이는 내재적 종

24) 설경옥 · 박지은 · 박선영, “종교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메타분석: 국내학회지 게재 논문(1995-2011)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1권 3호(2012): 633-634; 서유진 · 이규미, “내재적 종교성향과 역경후 성장의 관계: 감사성향과 사건중심성의 매개효과”,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제17권 3호(2016): 447; 이운미 외, “내재적 종교성향과 교직헌신도와와의 관계에서 친사회적 행동과 주관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한국교육방법학회, 「교육방법연구」 제26권 2호(2014): 189-190.

25) 이억범, “기독교대학생의 신앙성숙도와 관련된 변인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한영논총」 제17권(2013): 99-100; 이억범, “기독교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경로분석”, 120-122.

26) 정민선 · 박미하, “기독교대학생의 내재적 종교성향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환상의 매개효과”,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3권 1호(2015): 277-278.

교성향이 진로변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매개변인에 정적인 영향을 주어 진로에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자아존중감은 종교성향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취업을 선택하는 과제에서 경험하는 위기를 극복하고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²⁷⁾ 정명숙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진로결정을 통해 인지적인 균형을 유지하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욕구와 관련이 없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하였다.²⁸⁾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진로에 있어서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고 확신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송소원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의존도가 낮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진로결정 확신이 높으며, 진로미결정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⁹⁾ 고미나와 박재황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차이에 따라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진로결정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진로미결정과 부적인 상관성이 있었고, 신학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은 진로결정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³¹⁾ 이러한 결과들은 자아존중감이 자기에 대한 가치감과

27) 이차선, “가정환경, 학교환경,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제주도 청소년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백록논총』 제2권(2000): 116.

28) 정명숙, “신학대학생의 자기존중감과 자기분화와 진로결정수준 간의 상관관계 연구”, 8.

29) 송소원,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행동 자기효능감에 따른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 14.

30) 고미나 · 박재황,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결정 관계분석”, 진로교육학회, 『진로교육연구』 제21권 3호(2008): 78-79.

31) 김희수,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 76; 정명숙, “신학대학생의 자기존중감과 자기분화와 진로결정수준 간의 상관관계 연구”, 30-49.

자신감을 기반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선택과 그 결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함으로써 진로결정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종교성향에 따라 각각 정적 혹은 부적인 영향을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종속변인에 정적인 매개역할을 한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기독교인의 우울에 대한 연구에서 외재적 종교성향은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내재적 종교성향은 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우울을 감소시키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³²⁾ 이로 볼 때, 자아존중감은 기독교대학생의 종교성향에 따라 각각 다른 영향을 받지만 결과적으로는 진로결정수준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는 매개변인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교성향에 따라 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다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기독교대학생의 종교성향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지역에 소재한 1개 대학과 경기도에 소재한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대학생 300명을 임의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6년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배포된 300부의 설문지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설문지 53부를 제외하고 총 247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대상의 성별은 남자가 106명(42.9%), 여자가 141명(57.1%)이었고, 학년별로는 4학년이 84명(34.0%)으로 가장 많았고, 1학년이 60명(24.3%), 2학년이 55명

32) 박미하, “기독교인의 종교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의 매개효과”, 89-90.

(22.3%), 3학년이 48명(19.4%) 이었다.

2) 측정도구

(1) 종교성향 척도

Allport의 이론을 기초로 제석봉과 이성배가 개발한 한국판 종교성향 척도를 사용하였다.³³⁾ 이 척도는 외재적 종교성향과 내재적 종교성향을 측정하는 13문항씩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Cronbach α 계수는 외재적 종교성향이 .75, 내재적 종교성향이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외재적 종교성향이 .87, 내재적 종교성향이 .95로 나타났다.

(2) 자아존중감 척도

Rosenberg가 개발하고 전병제가 번안한 것을 유명미가 사용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³⁴⁾ 이 척도는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이 각각 5 문항씩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부정문항은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명미의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 α 계수는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1로 나타났다.

(3) 진로결정수준 척도

진로결정수준 척도는 Osipow 등이 개발하고 고향자가 한국 문화에

33) 제석봉·이성배, “종교성향검사(ROS)의 개발과 종교적 성향이 적응 및 종교적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 제11권(1995): 245-280.

34) 전병제, “자아개념측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연세논총』 제11권 1호(1974): 109-30; 유명미, “독서요법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성격강점, 정서인식과 공감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5), 28.

35) 고향자,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1992), 41-43; S. H. Osipow, C. G. Carney, & A. Barak, “A Scale of Educational 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1976): 233-243.

맞게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³⁵⁾ 이 척도는 총 18개의 문항으로 진로에 대한 확신 정도를 나타내는 2개의 문항과 진로 미결정 정도를 측정하는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16개의 미결정 문항을 역채점하여 측정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Osipow 등의 연구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0과 .82이었고, 고향자의 연구에서 Cronbach α 계수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8.0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신앙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변인의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종교성향, 자아존중감,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을 하였다. 그리고 종교성향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가 제시한 매개회귀분석(The 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³⁶⁾ 이 방법은 총 3단계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2단계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 매개변인이 종속

35) 고향자,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1992), 41-43; S. H. Osipow, C. G. Carney, & A. Barak, “A Scale of Educational 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1976): 233-243.

36) R. M. Baron &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1986): 1173-1182.

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3단계에서 나타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2단계보다 유의미하게 감소하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³⁷⁾

3. 연구의 결과 분석

1) 기독교대학생의 종교성향, 자아존중감,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

기독교대학생의 종교성향, 자아존중감,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외재적 종교성향은 내재적 종교성향($r=-.29, p<.001$), 자아존중감($r=-.33, p<.001$), 진로결정수준($r=-.47,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내재적 종교성향은 자아존중감($r=.21, p<.01$), 진로결정수준($r=.19, p<.05$)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자아존중감과 진로결정수준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43, p<.001$).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외재적 종교성향이 높을수록 내재적 종교성향, 자아존중감, 진로결정수준도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내재적 종교성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진로결정수준도 높아지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종교성향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외재적 종교성향과 내재적 종교성향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37) M. E. Sobel,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 *Sociological Methodology* 13(1982): 290-312.

〈표 1〉 기독교대학생의 종교성향, 자아존중감, 진로결정수준 간의 상관관계

변인	외재적 종교성향	내재적 종교성향	자아존중감	진로결정수준
외재적 종교성향	-			
내재적 종교성향	-.29***	-		
자아존중감	-.33***	.21**	-	
진로결정수준	-.47***	.19*	.43***	-
<i>M</i>	2.23	3.66	2.87	3.56
<i>SD</i>	.75	.92	.48	.78

* $p < .05$, ** $p < .01$, *** $p < .001$

2) 종교성향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종교성향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고 Sobel Test를 한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매개회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과 상호독립성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VIF는 모두 10이하로 나왔고, Durbin-Watson은 모두 2에 근접하여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재적 종교성향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외재적 종교성향은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3, p < .001$). 2단계에서도 독립변인인 외재적 종교성향은 종속변인인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beta = -.47, p < .001$).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외재적 종교성향과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은 진로결정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beta = .49, p < .001$), 외재적 종교성향도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beta = -.37, p < .001$) 그 영향력이 2단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47 \rightarrow -.37$). 또한 2단계의 설명력($R^2 = .22$)에 비해 3단계의 설명력($R^2 = .30$)이 매우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Sobel Test를 한 결과에서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 -3.82, p < .001$).

이러한 결과는 외재적 종교성향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변인과 독립변인 모두가 유의하고 독립변인의 회귀계수 값이 2단계에서보다 3단계에서 감소하면 부분매개효과가 있다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따라서 외재적 종교성향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독교대학생의 외재적 종교성향이 진로결정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기도 하지만, 자아존중감을 통해서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반면, 내재적 종교성향은 1단계에서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beta = .21, p < .01$), 2단계에서도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9, p < .05$). 그러나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beta = .40, p < .001$), 내재적 종교성향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1$). 또한 설명력도 2단계($R^2 = .04$)보다 3단계($R^2 = .19$)에서 매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재적 종교성향에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인으로 추가되었을 때에는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효과가 있다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즉, 자아존중감($\beta = .19 \rightarrow .11$ ns.)은 3단계에서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라졌으며, Sobel Test 결과 통계적으로도 그 계수의 차이가 유의하여($z = 3.04, p < .001$) 완전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내재적 종교성향은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자아존중감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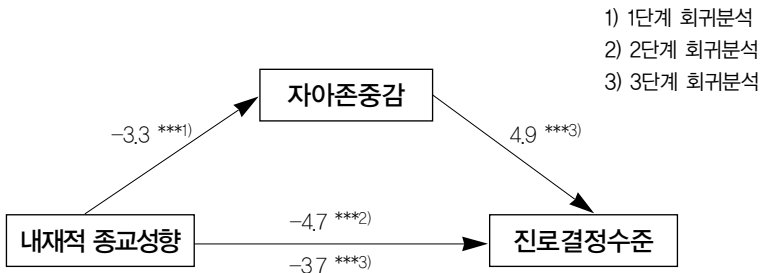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볼 때, 기독교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재적 종교성향을 감소시키고, 내재적 종교성향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표 2〉 기독교대학생의 종교성향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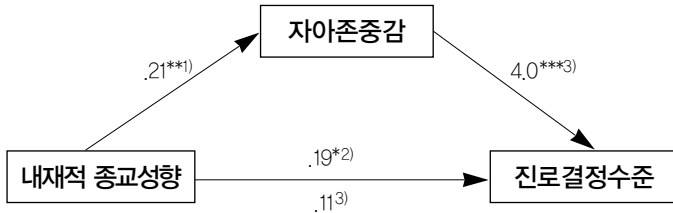
독립변수	진로결정수준				매개조건총족				VIF	Dubin-Watson
	β	<i>t</i>	R^2	<i>F</i>	1	2	3	4		
외재적 종교성향										
1단계	-.33	-5.54***	.11	30.72***	○				1.000	2.078
2단계	-.47	-8.39***	.22	70.30***		○			1.000	2.006
3단계(독립)	-.37	-6.56***	.30	53.24***			○		1.125	1.985
3단계(매개)	.49	5.32***						○		
내재적 종교성향										
1단계	.21	3.43**	.05	11.79**	○				1.000	2.083
2단계	.19	3.08*	.04	9.49*		○			1.000	1.761
3단계(독립)	.11	1.81	.19	29.00***			×		1.048	1.773
3단계(매개)	.40	6.84***						○		

* $p < .05$, ** $p < .01$, *** $p < .001$

위의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1〉,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외재적 종교성향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그림 2〉 내재적 종교성향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III. 닫는 글

본 연구는 기독교대학생의 종교성향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대학생의 종교성향, 자아존중감, 진로결정수준 간에는 모두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재적 종교성향은 자아존중감, 진로결정수준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고, 내재적 종교성향은 자아존중감, 진로결정수준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자아존중감은 진로결정수준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외재적 종교성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진로결정수준도 낮아지고, 내재적 종교성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진로결정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재적 종교성향이 미성숙한 신앙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이 있고, 내재적 종교성향이 성숙한 신앙태도로 적응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종교성향에 따라 심리적 특성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³⁸⁾ 이는 종교성향에

38) 심수명, “전인성숙을 위한 제자훈련 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 199; 제석봉, “외재적-내재적 종교성향과 불안 및 부적응과의 관계”, 121-234.

대한 연구가 동일한 종교인에 대한 개인차를 밝혀주는데 유용한 변인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증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라는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내담자에 대한 개인차를 설명하고 차별화된 기독교 상담적 개입을 위해서는 종교성향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독교대학생의 종교성향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외재적 종교성향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재적 종교성향은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이다. 반면, 내재적 종교성향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적 종교성향은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즉, 내재적 종교성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재적 종교성향이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내재적 종교성향이 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자아존중감이 우울을 감소시키는 매개변인으로 효과가 있었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한다.³⁹⁾ 자아존중감이 진로결정수준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⁴⁰⁾ 그리고 내재적 종교성향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긍정적 환상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39) 박미하, “기독교인의 종교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89-90.

40) 송소원,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행동 자기효능감에 따른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 14; 김희수,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 76; 정명숙, “신학대학생의 자기존중감과 자기분화와 진로결정수준 간의 상관관계 연구”, 30-49.

미쳤다는 선행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⁴¹⁾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두 가지 주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기독교대학생들이 진로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내재적 종교성향보다 외재적 종교성향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는 기독교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에서 일차적인 상담목표가 신앙 동기와 태도 점검을 통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확립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임현만은 기독교인은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기 전에 ‘존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일차적 소명이 있다고 하였다. 이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직업적 부르심을 의미하는 이차적 소명을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⁴²⁾

이런 의미에서 내재적 종교성향의 기독교대학생은 일차적 소명을 성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외재적 종교성향의 기독교대학생은 일차적 소명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차적 소명에 더 큰 가치를 두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전공과 미래 직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결정을 지연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⁴³⁾ 따라서 기독교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재적 종교성향에서 내재적 종교성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독교 상담전략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기독교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을 높이는데 있어서 종교성향보다 자아존중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자신의 미래 진로를 선택하고 그 결정에 대해 확신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진로결정수준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

41) 정민선·박미하, “기독교대학생의 내재적 종교성향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환상의 매개효과”, 277-278.

42) 임현만, “일차적 소명의 관점으로 보는 이차적 소명으로서의 직업과 기독교 상담”,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3권(2009): 47-48.

43) Friesen & Maxson, *Decision Making and the Will of God*, 126.

다. 자신의 결정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내적 신뢰와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기가치감과 자신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신에 대한 내적 신뢰를 가지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의 건강한 자아존중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된다. 내재적 종교성향의 기독교대학생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인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서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외재적 종교성향의 기독교대학생은 하나님 외의 외적 가치의 획득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이 높을 때 진로결정수준이 향상된다는 점에서 자아존중감은 매우 중요한 매개변인이므로 기독교대학생의 진로상담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독교 진로상담현장에서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재적 종교성향을 내재적 종교성향으로 변화시키면서 자아존중감을 함께 증진시키는 상담목표와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기독교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종교성향과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종교성향의 유형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르다는 사실을 검증함으로써 동일한 기독교대학생일지라도 신앙의 동기에 따라 차별화된 개입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기독교 상담의 궁극적 목표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종교성향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효과적인 매개변인임을 제시하고, 기독교 진로상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통한 건강한 자아존중감 형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 경기지역의 기독교대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기독교대학생에게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둘째, 자아존중감 척도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자아존중감 특성에 적합한 측정도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종교성향과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만을 검증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주요변인들의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기독교대학생의 신앙특성과 같은 통제변인이 주는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 고미나 · 박재황.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결정 관계분석”. 진로교육학회, 「진로교육연구」 제21권 3호(2008): 69-85.
- 고향자.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1992.
- 김봉환 · 김계현.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9권 1호(1997): 311-333.
- 김재석. “대학생의 내재적-외현적 종교성향에 따른 비합리적 신념 수준의 차이”.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제9권 1호(2008): 15-28.
- 김희수.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 경북대학교 사범대학부속中等교육연구소, 「中等교육연구」 제53권 3호(2005): 63-88.
- 박미하. “기독교인의 종교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의 매개효과”. 기독교학문연구회, 「신앙과 학문」 제19권 1호(2014): 77-96.
- 박진희. “나눔의 프락시스에 기초한 기독교대학생 진로상담의 모델과 실천방향.”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0권(2012): 125-153.
- 서유진 · 이규미. “내재적 종교성향과 역경후 성장의 관계: 감사성향과 사건중심성의 매개효과”.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제17권 3호(2016): 441-456.
- 설경옥 · 박지은 · 박선영. “종교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메타분석: 국내학회지 게재논문(1995-2011)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1권 3호(2012): 633-634.
- 송소원.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 자기효능감에 따른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 상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제14권(2001): 1-23.
- 송원섭.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서울: 양서원, 1989.
- 심수명. “전인성숙을 위한 제자훈련 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 종교성향과 동기이론을 중심으로”.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국제신학」 제8권(2006): 195-242.

- 유영미. “독서요법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성격강점, 정서인식과 공감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5.
- 이성식.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모형”.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7.
- 이억범. “기독교대학생의 신앙성숙도와 관련된 변인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한영논총』 제17권(2013): 93-110.
- 이억범. “기독교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경로분석”. 진로교육학회. 『진로교육연구』 제24권 4호(2011): 111-129.
- 이윤미 · 이지희 · 이지혜 · 김소린 · 이상민. “내재적 종교성향과 교직헌신도와 의 관계에서 친사회적 행동과 주관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한국교육방법학회. 『교육방법연구』 제26권 2호(2014): 179-200.
- 이차선. “가정환경, 학교환경,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제주도 청소년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백록논총』 제2권(2000): 109-136.
- 이현주.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따른 인지양식 차이”.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제37권 2호(1999): 235-257.
- 임은미 · 장선숙. “인터넷 활용 진로정보탐색 프로그램의 즉시적 효과와 지속적 효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제18권 4호(2004): 139-154.
- 임현만. “일차적 소명의 관점으로 보는 이차적 소명으로서의 직업과 기독교 상담”. 한국복음주의 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3권(2009): 47-48.
- 정명숙. “신학대학생의 자기존중감과 자기분화와 진로결정수준 간의 상관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호남신학대학교, 2011.
- 정민선 · 박미하. “기독교대학생의 내재적 종교성향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환상의 매개효과”.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3권 1호(2015): 277-278.
- 정지은 · 김민태 · 오정요 · 원윤선. 『아이의 사생활』. 서울: 지식채널, 2010.
- 제석봉. “외재적-내재적 종교성향과 불안 및 부적응과의 관계”.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연구논문집』 제53권 1호(1996): 121-234.
- 제석봉 · 이성배. “종교성향검사(ROS)의 개발과 종교적 성향이 적응 및 종교적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 제11권(1995): 245-280.
- 조혜윤 · 손은정. “종교성향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종교적 대처와 낙관성의 매

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0권 3호(2008): 773-793.

- Allport, G. W. & J. M. Ross.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967): 432-443.
- Baron, R. M. &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1986): 1173-1182.
- Branden, N. *The Power of Self-Esteem*. 강승규 역. 『나를 존중하는 삶』. 서울: 학지사. 1992.
- Calson, D. E. *Counseling and Self-Esteem*. 이관직 역. 『자존감』. 서울: 두란노. 1997.
- Earl, Jim K. & Jim E. H. Bright.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Status and Important Work Outcom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1, no. 2(2007): 233-246.
- Earl, Jim K., A. Minbashian, A. Sukjjjakhamin, & Jim E. H. Bright. “Career Decision Status as a Predictor of Resignation Behavior Five Years Later.”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8, no. 2(2011): 248-252.
- Friesen, G. & J. R. Maxson. *Decision Making and the Will of God: A Biblical Alternative to the Traditional View*. Portland, OR.: Multnomah Press, 1980.
- Lucas, M. S. “A Validation of Types of Career Indecision at a Counseling Cente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no 4:(1993): 440-446.
- Osipow, S. H., C. G. Carney, & A. Barak. “A Scale of Educational 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1976): 233-243.
- Saunders, D. E., G. W. Peterson, J. P. Sampson, Jr., & R. C. Reardon. “Relation of Depression and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to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 no 2(2000): 288-298.
- Sobel, M. E.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 *Sociological Methodology* 13(1982): 290-312.
- 조선일보. “3배 급증한 졸업유예, 취업에 별 도움 안돼”. (2016년 2월 29일): 2016년 9월 2일 접속. 해당 사이트: <http://news.chosun.com>.

【 Abstract 】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i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eligious Disposi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Mi Ha Bak

Seoul Hanyo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i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eligious disposi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The subjects of study were 247 university students with the Christian faith and survey research was conducted by using religious disposition scale, self-esteem scale and career decision level scale. The data analysis was performed by using SPSS 18.0.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 First, it showed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extrinsic religious disposition and self-esteem of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and intrinsic religious disposition showed positive correlation. Second, self-esteem had partial mediating effects in the correlation between extrinsic religious disposi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Namely, extrinsic religious disposition also had indirect effects through self-esteem while having direct effects on career decision level. On the other hand, self-esteem was found to have complete mediating effects in the correlation between intrinsic religious disposi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Although intrinsic religious disposition did not have statistically direct effects on career decision level, it had indirect effects through self-esteem. Accordingly, it discussed the need to develop a Christian counselling intervention strategy for reducing extrinsic religious disposition and enhancing self-esteem through intrinsic religious disposition to improve the career decision level of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Key words: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extrinsic religious disposition, intrinsic religious disposition, self-esteem, career decision level